

T&I REVIEW

June 2025. Vol. 15. No. 1.

통역사의 AI 활용 및 인식*
- 국내 통역사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이주리에**. 이주연***. 이준호****. 허지운**

Juriae Lee, Juyeon Lee, Junho Lee, Jiun Huh (2025). Interpreters' use and perceptions of generative AI: A survey of Korean professional interpreters. Despite rapid advances in AI, research on its use in interpreting is limited; little is known about interpreters' perception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KATI among interpreters in Korea, generative AI has yet to significantly impact the interpreting market, but interpreters are showing interest in it and using it in various ways during preparation. Interpreters who actively utilize AI and prepare for future changes tend to have a more positive outlook on the AI era. At the same time, concerns were expressed about the ethical implications of using AI in interpreting and its potential impact on the profess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enhanced training and institutional support are needed to help interpreters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adapt to ongoing transformations in the AI era. (Ewha Womans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ung Ang University, Korea)

Keywords: Generative AI, interpretation, survey, ethics of AI, outlook

주제어: 생성형 AI, 통역, 설문조사, AI 윤리, 전망

* 본 연구는 한국통번역사협회(Korea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KATI)의 협조로 수행될 수 있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논문은 2024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또한, 이 논문은 202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중앙대학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통번역에 대한 인식, 업무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연구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온라인 조사(양정애 2023)에 따르면 10개 직업군 중 생성형 AI의 대체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으로 번역가와 통역사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¹⁾ 한편, 통번역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에는 AI가 인간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곽아람과 김민정 2023; 이호준 2025; 임주형 2024). 이렇듯 기술 발전과 함께 통번역의 미래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 가운데 AI, 나아가 생성형 AI 시대에 과연 통역사는 기술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는 등 질문이 생긴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는 빠르게 대중에게 일반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를 보면 챗GPT가 2022년 11월에 공개된 지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했고(정호준 2025), 최근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의 인기로 2025년 3월 말 한 시간 동안 챗GPT의 사용자가 100만 명이 추가되었다고 발표되기도 했다(김현정 2025).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생성형 AI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며, 2025년 3월 기준, 한국인의 챗GPT 인지율은 70%, 사용 경험률은 50.9%로, 미국(29.0%)과 일본(14.8%)에 비해 월등히 높다(김은영 2025). 그만큼 국내 통역사의 이용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통역사의 도구 사용에 대한 연구(Lee et al. 2024)에서는 컴퓨터 보조 통역(CAI: computer-assisted interpretation) 도구의 사용이 전체적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해외 연구에서도 통역사의 기술 수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Corpas Pastor and Fern 2016; Prandi 2023).

번역의 경우 2016년 11월에 구글이 인공지능경망 기계번역(GNMT: Google neural machine translation)을 공개²⁾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며, 그동안 기계번역은 번역사 외에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친숙한 도구가 되었으며, 번역 방식에 컴퓨터 보조 번역(CAT: computer-assisted translation) 도구가 활용되고

1) 1위는 번역가/통역사, 2위는 데이터분석 전문가, 3위는 자산관리사/보험설계사, 4위는 회계사/세무사, 5위는 이미지/영상편집자, 6위는 고객상담사, 7위는 개발자/프로그래머, 8위는 기자(언론인), 9위는 교수/교강사, 10위는 작가/작사가/작곡가였다.

2) GNMT는 2016년 11월 15일에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터키어 등 8개 언어쌍에만 적용되었고 제로샷 번역(zero-shot translation) 기능을 통해, 학습되지 않은 언어쌍도 번역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손경호 2017).

포스트에디팅도 많이 도입되어 번역사의 기술 활용은 통역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었다. 기술 관련 번역 연구 면에서도 번역 품질뿐 아니라 번역사의 NMT 수용이나 인식에 대한 연구(남신혜 2019; 이상빈 2018; 이주리에 2021b; 이준호 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나아가 2022년에 OpenAI가 GPT-3.5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세계적으로 통번역의 주제는 AI 관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령 2025년 5월 1일 현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챗GPT, 번역’을 검색어로 하면 48건의 연구가 검색되며, 2023년에 17건, 2024년에 29건으로 연구 수도 급증하고 있다. 연구 주제는 주로 생성형 AI의 번역 품질, 평가, 활용 방법, 교육이며, 번역 업계나 교육 현장의 챗GPT 수용(김은영 2025; 송연석 2024; 이구용 2024; 이지원 2024; 지윤주 외 2023)을 다룬 연구도 볼 수 있다.

통역의 경우는 AI와 통역 관련 연구가 비교적 최근 나타나는데, 2024년 하반기에 국제 저명 통역학 학술지인 *Interpreting*에 통역과 기술 주제로 특별호가 편성³⁾되어 자동음성인식(ASR) 및 CAI를 활용한 통역, 컨퍼런스 통역사의 기술 준비도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 등 국제적으로 AI 기술과 통역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를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KCI에 ‘챗GPT, 통역’으로 검색하면 5건이 검색되고 주제는 모두 챗GPT를 활용한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 통역사의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이용 현황이나 수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24년 하반기에 국제번역가연맹(FIT: Federación Internacional de Traductores), 국제회의 통역협회(AIIC: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ètes de Conférence) 등에서 AI 기술과 통번역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입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등⁴⁾ AI가 통번역에 도입되는 단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국내 통역사에 대해서도 AI 기술의 이용 현황과 인식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생성형 AI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 가는 시대에, 기대와 우려의 공존 안에서 과연 통역사는 AI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AI의 활용에 앞서 통역 실무 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역사의 생성형 AI의 사용 여부는 사전 준비의 속도와 통역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프리랜서 통역사와 인하우스 통역사를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 실무 현장 경험, 윤리적 우려,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3) *Interpreting* 2024년 26권 2호(<https://www.jbe-platform.com/content/journals/1569982x/26/2>)

4) 4장의 논의 및 결론에서 후술함.

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통역사들이 AI 기술을 도구로써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 우려 사항은 무엇인지, 준비 과정 및 직업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 및 교육 측면에서 고려할 실질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통역과 기술 연구

통역에서 기술 사용은 동시통역 장비, 전화 통역, 수어 통역을 위한 영상 등 주로 통역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기술이나 송출 장비였다(Pöchhacker and Liu 2024). 이제는 AI의 발전에 따른 ASR 및 기계번역 등이 다뤄지는 시대가 되었으며,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부스메이트(ABM: artificial boothmate)로 불리는 통역 보조 도구는 그림 1과 같이 연사의 발화에서 고유명사(좌측)와 숫자(우측)를 자동 추출해서 보여준다.



그림 1. 인공지능 부스메이트 (출처: Center for Augmented Interpretation⁶⁾)

5) 판티누올리(Fantinuoli 2023)는 CAI를 통역 업무 흐름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분류한다. 먼저 업무 흐름은 준비 단계, 통역 중 기술 활용(ASR 등), 통역 후 정리(용어 업데이트, 문서 정리 등)로 나뉘는데 나아가 기술을 이용한 통역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의 진보 기준으로는 2000년대 초반 워드나 엑셀 등에 용어를 정리하는 1세대, 전문용어 및 지식관리 툴을 활용하는 2세대, AI의 발전에 따른 ASR 및 기계번역 등이 다뤄지는 3세대로 나누었다.

이러한 음성인식은 동시통역 뿐 아니라 순차통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트테이킹을 대신하고 자동 전사를 시역(Sight Translation)하는 형태로 통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전사본 전체가 제공되는 것은 오히려 인지 부하를 가중시키기도 하며(이주리에 2021a, 2022; Lee 2024), 숫자, 고유명사 등 일부만 제공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도 한다(Wang and Wang 2019). 따라서 전체 전사를 하되 숫자만 하이라이트 해 주는 등 순차통역 CAI 도구가 별도로 개발되어 있기도 하다⁷⁾. 물론 동시통역에서도 실시간 자막을 제공했을 때 정확도는 올라가는 반면 유창성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Wang and Wang, 2019; Cheung and Li 2022; Li and Chminel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통역에서 자막 제공은 통역사를 도울 수 있는 기술로 보는데, 그 이유는 자막을 보는 것은 통역사의 선택이며, 자막이 제공된다는 사실에 놓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Lee 2024). 또한 통역하면서 자막 읽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막이 인지적 도움을 주어 부담을 상쇄하는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인지 부하를 줄여준다고도 한다(Li and Chminel 2024).

통역 보조를 위한 음성인식 기술을 증강현실(AR) 기술과 접목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R 장치를 머리에 착용해야 하는데, AR 장치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숫자나 고유명사를 눈앞에서 볼 수 있어 통역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장치의 착용이 불편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어려워 통역 과정에 방해가 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Gieshoff et al. 2024).

그밖에 통역사의 일정 관리와 배정 등 통역사 관리 시스템도 통역사를 보조하는 기술로 보는데, 플랫폼을 통해 통역사에게 일이 배정되기 때문에 통역의 우버(Uber)화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Fantinuoli 2023).

한편, 기계 통역(MI: machine interpreting) 연구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3세대 기술을 판티누올리(2023)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자연어처리와 생성, 요약 기능, 자동 언어 인식, 기계번역, 기계 통역으로 확장하여 설명한다. 이 중에서 기계 통역은 실시간 번역 자막을 의미하며⁸⁾, CAI로서 인간 통역사

6)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 대학교(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의 CAI(Center for Augmented Interpretation) 홈페이지이며 2021년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없고 그동안 개발된 툴의 아카이브만 볼 수 있다. <https://cai.uni-mainz.de/asr-prototype/>

7) 예를 들어 [cymo note\(https://www.cymo.io/en/note.html\)](https://www.cymo.io/en/note.html)는 순차통역 보조 통역 도구로, 음성 전사와 함께 숫자 부분만 하이라이트 해 주는 기능이 있다.

8) MI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먼저 *cascading approach*는 음성인식-기계번역-음성변환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음성변환 없이 자막으로만 제공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end-to-end approach*는 전사하여

를 크게 보조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CAI 연구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MI를 구현한 연구가 있다. 김아영(2020)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계번역 출력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구축한 후,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실제 강의실에서 그 기능을 시연한 결과 ①장비 제어에 의한 잘못된 메시지 제공, ②전송 단위 차이에 따른 낮은 동시성, ③구두 통역과 서면 자막 번역의 차이로 낮은 커버리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았겠지만, 최근 여러 업체에서 내놓고 있는 실시간 자막이 다언어에 대응해야 하는 회의나 강의실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최선 2025)가 보고되고 있어, 그동안 음성인식 기술의 진보로 자막 출력의 성능이 많은 부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그림 2. 실시간 자막 제공 사례(출처: 최선 2025)

2.2. 통역에 활용되는 기술에 대한 인식 연구

기술에 대한 통역사의 인식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번역 관련 조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학생의 기술 인식 연구이다. 지윤주 외(2023)의 학부 전공자 126명을 대상으로 한 챗GPT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관심있다(42.1%)’, ‘보통(38.1%)’, ‘관심없다(19.3%)’의 순으로 비교적 관심도는 높은 편이었다. 또한, 챗

번역하는 단계 없이 바로 ST를 TT로 바꾸는 방법이지만 아직 데이터 부족으로 구현이 쉽지 않다(Fantinuoli 2023).

GPT를 번역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도 많았으나 의존도,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챗GPT가 번역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응답도 많지 않았으며, AI 번역 사용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사용 여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윤리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학 수업을 듣는 학부생 연구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 이지원(2024)에서는 초급 중국어 학습자의 번역 수업에서 챗GPT 사용 경험에 대해 빠르고 편리하고 다양하며 번역에 도움 되지만, 부정확성, 윤리적인 문제, 지나친 의존 문제도 있다고 응답해, 지윤주 외의 번역 전공생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한편, 송연석(2024)은 8명의 교수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면접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인간 번역 대 MT의 이분법적 사고가 뿌리 깊고, 교수자들 간 MT 리터러시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AI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번역 품질이 중앙 평준화되는 점을 우려했으며, 연구와 현장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즉, 학문적으로는 포스트에디팅(MTPE) 능력과 번역 능력을 구분하지만 교수자들은 그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MT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윤리뿐만 아니라 번역사의 권리 의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요율이 많이 낮아지는 우려로 이어져 KATI(한국통번역사협회)와 같은 권익 보호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연구도 시급해 보인다.

산업 측면의 조사 연구로는 주로 번역을 대상⁹⁾으로 하여 인공지능에 초점을 둔 유럽 언어 산업 조사(ELIS Research 2024)가 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번역사들의 MT 사용 비율이 번역 회사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응답자의 23%는 2023년에 AI를 처음 사용했으며, 21%는 2024년에 AI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70% 이상의 언어(번역) 회사들은 번역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 중이며 63%의 번역 학습자들이 번역 교육에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프리랜서 번역사는 일반인의 AI 수용이 많아지면서 인간 번역을 대체하는 기계번역의 수요가 올라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번역에 특화된 기계번역을 대신하는 도구로서 AI를 사용할 때 MT 엔진과 언어쌍, 언어모델 등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생성형 AI 번역 품질이 프리미엄 MT와 비슷하거나 약간 아쉽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기술 사용에 대한 통역 관련 인식 연구이다. 배문정(2023)은 통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시통역의 인간 통역, AI 통역, 자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9) 프리랜서 언어 전문가 919명, 교육기관 소속 170명, 번역 학습자 352명, 언어 담당 부서 및 언어서비스 사용자 78명, 언어회사 257명.

외국계 금융기관 한국 법인의 한국인 직원 30대부터 50대까지 총 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및 설문조사이다. 인간 통역은 통역대학원 2학년생이 담당했고, AI 통역은 DeepL로 번역한 후 파파고 AI에 음성을 입혀서 제공했다. 자막은 유튜브 동영상의 자동번역 자막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먼저 국제회의 상황에 대한 선호도는 자막(37.5%), 인간통역(35%), AI통역(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가 능숙한 참여자는 자막의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통역 의존도가 높은 사용자는 인간 통역을 선호했다. 인하우스 상황에서는 인간 통역사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82.5%), 이에 대해서는 통역의 정확성보다 인간 통역사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 내부 상황에 대한 지식, 감정 전달, 돌발 상황 대처 등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가 선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AI 통번역이 인간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실제 통역 사용자들은 정확도 외의 요소에서 많은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배문정 2023: 608).

통번역에 사용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용어집 사용 등에 대해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챗 GPT가 공개된 지 수 개월에 불과한 2023년 상반기에 이루어져 이후 생성형AI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 연구(Lee et al. 2024)는 2023년 2월 국내 통번역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통번역에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럽에서 개발된 인터프리트뱅크(InterpretBank) 등의 전문용어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은 매우 적었고, 태블릿 등으로 전자 필기와 녹음 앱 활용이 가능함에도 순차통역 시 종이와 펜의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프리랜서 통역사는 CAT 도구, 외부 USB 마이크 등 장비 사용에 적극적이었고 실시간 숫자, 고유명사의 자동 추출 기능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CAI 도구가 개발 및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 통역사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고 해당 도구를 접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 특화된 CAI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실습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다음은 국제회의 통역사 496명을 대상으로 한 통역사의 기술 친화도 관련 설문 및 인터뷰 연구(Fan 2024)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496명의 국제회의 통역사(AIIC 회원 비중 64.5%)에게 기술 준비도 지수(Technology Readiness Index, TRI 2.0)와 기술 사용 현황 및 인식 조사를 하고 응답자 중 25명에게는 반구조화 면접을 실시했다. TRI 결과, 평균 3.21로 기술 준비도 수준은 중

간 정도로 나타났다. 원격통역 기술 덕분에 이동하지 않고도 통역이 가능한 모빌리티(평균, 4.00)와 생산성 향상(평균 3.94)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지나친 기술 의존(평균, 3.31)과 산만함(평균, 3.67)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터뷰 결과는 전반적으로 AI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 대체적으로 유보적이었으나, ASR과 기계번역이 생산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회의 직전에 받은 연설문을 기계 번역하거나 사전 녹화 영상을 ASR로 전사하는 등의 AI 활용이 통역 준비에 유용하다고 평가했으며,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인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전략적인 사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계번역의 무분별한 수용과 의존,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원격통역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했으나, 음질과 통신문제는 스트레스로 이어져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AI가 인간보다 정확할 수는 있으나 문화적 맥락의 통역은 인간의 몫임을 강조했다. AIIC와 같은 전문 협회가 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육 기관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커리큘럼에 기술 활용에 관한 윤리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생들에게 기술 발전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제안했다 그리고 AI 기술이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전략적 사용 방안을 고안해야 하며, 아울러 현직 통역사들 역시 새로운 디지털 도구에 적응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의 이용 경험, 유료 버전 이용률에 대해서는,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상반기(3월 29일~4월 2일)에 국내 20대~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챗GPT 이용 경험 및 인식 조사」(양정애 2023)가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2.8%가 챗GPT를 사용해 봤고, 그중 5%는 유료 버전을 이용 중이었다.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은 14.9%였으며, 분야별 활용성은 자료 수집/검색이 9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리바스와 무어킨스(Rivas and Moorkens 2024)가 2023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52명의 전문 번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챗GPT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챗GPT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41%, ‘가끔 사용’은 28%, ‘한두 번 사용해 봄’이 58.7%이며, 유료 사용자는 약 8.7%였다. 사용 용도는 요약, 이메일 초안 작성, 용어 찾기 등이 45%였고, 41%는 표현 수정을 위해 사용했는데 번역으로 사용한 경우는 23%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CAI 도구의 발전과 인지면의 효과, 통역사의 기술 수용 태도, 교육 방향 및 AI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통역사 관점에서의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생성형 AI가 최근 2년 사이에 AI 사용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반영한 통역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통역사 1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 경험, 활용 목적, 인식, 우려, 전망 등을 분석함으로써, 통역 실무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조명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프리랜서 및 인하우스 통역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의 사용에 대해 2025년 1월 5일~1월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구글폼)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IRB 승인(승인번호: 202411-HR-331)을 받았으며, 설문지 항목에 연구용 활용 및 설문지 응답 사례 발송을 위한 연락처 제공 체크를 통해 연구 동의를 얻었다. 설문 대상은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회원 및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중앙대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출신인 대상자¹⁰⁾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구글폼을 통해 설문 요청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110명 중 유효 응답은 109명이었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9개 영역으로 ① 통역 업무 형태 ②AI 도입에 따른 현장의 변화, ③인하우스 조직의 AI 활용 정책, ④생성형 AI 도구의 활용 현황, ⑤음성 자막 프로그램의 사용, ⑥자동번역/자동통역의 현재 경험, ⑦미래 전망과 대응, ⑧AI 자동통역 툴의 전망에 관한 인식, ⑨협회 지원 및 교육 수요 등 총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하, 설문 결과를 인구통계학적 특성, AI 도입에 따른 업무 현장의 변화, AI 도구 사용 현황, 음성자막 프로그램 사용, 미래 전망과 대응, AI 자동통역 툴의 전망, AI 시대를 대비한 준비와 교육/지원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겠다.

10) KATI 회원 외에 저자진이 소속된 기관의 졸업생에게도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언어권별 응답자의 수를 확보하였다.

3.1. 설문조사 결과

3.1.1. 인구통계학적 특성

(1) 통역 활동 형태 및 경력 등

전체 응답자 109명 중 조사 당시의 업무 형태는 프리랜서 통역사가 69명(63.3%), 인하우스 통역사가 40명(36.7%)이며, 통역사로 활동한 총 경력 연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자 속성(경력, 단위: %)

	없음 ¹⁾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프리랜서 총 경력	10.1	14.7	24.8	18.3	21.1
인하우스 총 경력	23.9	11	32.1	18.3	4.6

표 1은 응답자가 현재 업무 형태와 상관없이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지낸 경력을 의미한다. 프리랜서로 활동한 총 경력은 2~5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주를 이루면서 경력별 연수가 고루 분포된 모습이었고, 인하우스로 활동한 총 경력은 2~5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2) 연령 및 언어

표 2. 응답자 속성(연령, 전공언어, 단위: %)

연령				전공 외국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영어	중국어	일본어
2.8	63.3	36.6	7.3	46.8	29.4	18.3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가 뒤를 이었다. 통역 전공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가

1)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현직 인하우스와 프리랜서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활동이 인하우스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이전 경력에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경력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1명~2명씩 있었고, 한국어는 3명이었다. 응답자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응답자도 일부 존재했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응답자는 2명이었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응답자도 1명 있었다.

(3) 소속 조직 유형 및 규모

표 3. 인하우스 통역사의 조직 유형, 성격, 규모(단위: %)

유형		성격		규모			
기업/기관	기타	정부/공공기관	민간	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50명 미만	50명 이상
90	10	25	75	44.4	16.7	25	13.9

인하우스 응답자 40명의 소속 조직 유형은 ‘기업/기관 내 인하우스 통번역팀’ 소속이 가장 많았다. 기타로는 ‘비즈니스 통역’,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일반 임직원이나 통역 수행 겸임’, ‘기업 내 일반직이나 통번역 업무를 수행함’이 있었다. 기업/기관 소속 36명 중에는 민간 기업 소속이 대다수였다. 이들이 속한 조직의 통역사의 수는 ‘5명 미만’이 가장 많아 소규모 팀이 주를 이루었다.

3.1.2. AI 도입에 따른 업무 현장의 변화

(1) 인하우스 통역사

① 업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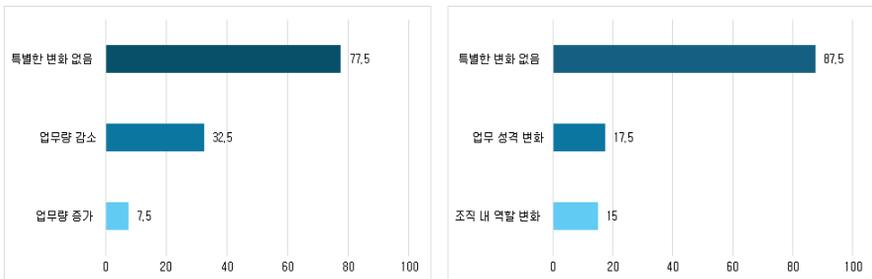


그림 3. 생성형 AI 등장 이후 조직 내 업무량 변화(좌) 및 업무 성격 변화(우), 단위: %

그림 3 좌측의 생성형 AI 등장 이후 조직 내의 업무량 변화(복수 응답)에 대해, ‘특별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업무량 감소’가 조금 있었으며, ‘업무량 증가’는 매우 적었다. 그밖에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 영어는 특별한 변화가 없으나 일본어는 업무량이 감소했다’, ‘아직 회사에서 미도입’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림 3 우측의 생성형 AI 등장 이후 조직 내 업무 성격 변화(복수 응답)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업무 성격 변화’와 ‘조직 내 역할 변화’가 약간 있었다. 기타 ‘Zoom으로 미팅 시, 동시통역 기능(eventcat) 이용’, ‘크게 중요치 않은 번역물은 DeepL 이용’이 있었다.

② 조직 내 생성형 AI 도구 활용 정책

소속 조직의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에 대한 입장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가 11명(27.5%), ‘해당 정책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가 10명(25%),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가 10명(25%), ‘조직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가 8명(20%), ‘전면 금지하고 있다’가 5명(12.5%)으로 나타나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각 기관에서는 신중한 편임을 알 수 있다.

③ 생성형 AI 도구 활용 금지 및 제한 이유

생성형 AI의 사용이 ‘전면 금지’ 또는 ‘제한적 허용’인 경우 그 주된 이유는 전 원 ‘기밀 유출이나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고, 그 외에는 ‘번역 품질에 대한 우려’(4명, 26.7%)와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가 부재하기 때문’(1명, 6.7%)이 있었다.

④ 생성형 AI 도구 활용 허용 및 권장 이유

생성형 AI의 사용을 ‘허용, 권장’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통역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10명(90.9%)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역 준비 시간 단축’이 7명(63.3%)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일반 임직원의 단순 번역 요청 감소시킴’, ‘통역사를 위한 게 아닌, 현업의 업무 용이성을 증대하기 위함’,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제가 속한 인하우스에서는 통역사가 PM 역할/회의 주도 역할도 함께 하기 때문에 AI 통역 도구를 활용해 회의 진행에 좀 더 집중하고 소통이 매끄럽지 않을 때만 통역사로서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가 있었다.

(2) 프리랜서 통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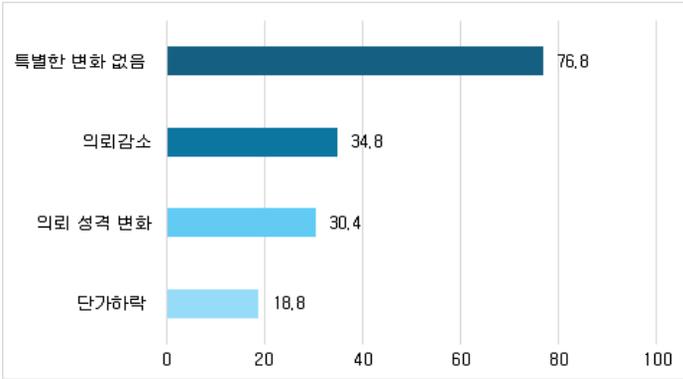


그림 4. 생성형 AI 등장 이후 통역 의뢰의 변화(프리랜서, 단위: %)

생성형 AI 등장 이후 통역 의뢰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그림 4),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은 ‘특별한 변화 없음’으로, 아직 생성형 AI가 프리랜서 통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지하는 통역사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뢰 감소’, ‘의뢰 성격 변화’와 함께 ‘단가 하락’ 등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일부 프리랜서 통역사들이 실제로 일자리 감소 및 단가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으며, 프리랜서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업무 내용이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도 시사한다. 특히, 응답 중 통역 업무는 아니지만 ‘(프리랜서 영상번역) 회사 측에서 전체 공지를 통해 (마지막 단계에) 오타 점검을 위한 챗지피티 사용을 권고한 적이 있음’과 같은 구체적인 응답은 생성형 AI가 업무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1.3. AI 도구 사용 현황

다음은 통역사들의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관심도, 사용 현황, 활용 목적, 유용성 평가, 장단점 인식, 그리고 AI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생성형 AI 도구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1점: 전혀 없다 ~ 5점: 매우 많다)에 대한 응답 결과, ‘매우 많다(5점)’(57명, 52.3%)가 가장 많았고, ‘많다(4점)’(36명, 33.0%)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생성형 AI 도구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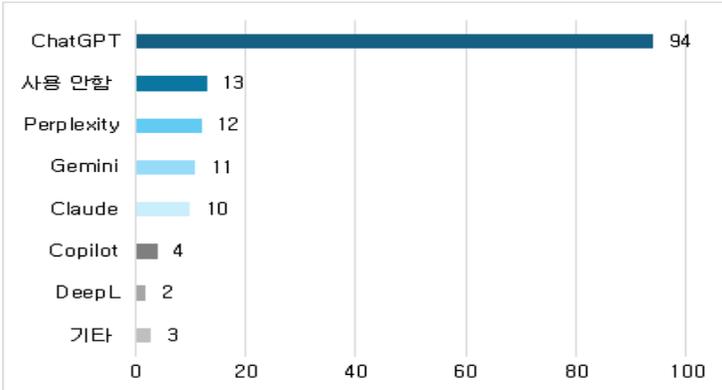


그림 5. 사용 중인 생성형 AI(단위: %)

사용하는 생성형 AI 도구(그림 5)로는 ‘ChatGPT’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Perplexity, Gemini, Claude, Copilot 등 다른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소수 확인되었다. 이는 ChatGPT가 응답 당시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성형 AI 도구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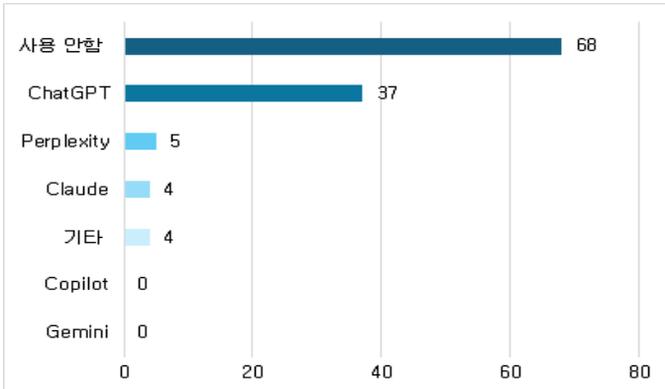


그림 6. 유료 사용 생성형 AI(단위: %)

유료로 사용하는 생성형 AI 도구(그림 6)로는 ChatGPT가 30% 조금 넘고 있었고, 대부분은 유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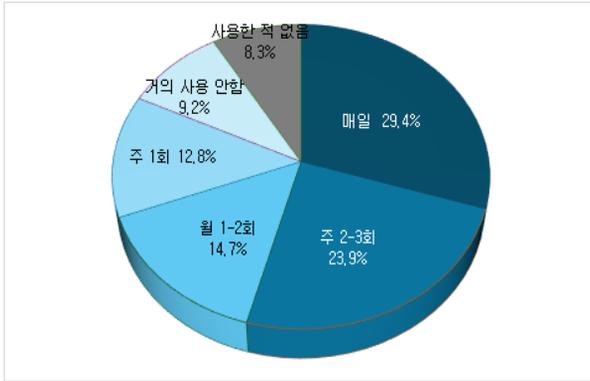


그림 7.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 빈도(단위: %)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 빈도(그림 7)는 ‘매일 사용’하는 경우가 30% 가까이 되었으며, ‘주2-3회’는 20%가 조금 넘어, 두 비율을 합하면 절반 이상은 사용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생성형 AI 도구의 주된 사용 목적은 ‘통역 참고 자료 검색’(70명, 64.2%)과 ‘통역 자료 번역’(58명, 53.2%)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용어 정리’(31명, 28.4%), ‘통역 자료 생성’(27명, 24.8%) 등이 있었으며, 기타 ‘통역 배경지식 공부’, ‘번역 운문’, ‘흐름이 길고 난해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자료의 register를 바꾸고 싶을 때’, ‘이메일 본문 수정’, ‘동의어, 개념 검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생성형 AI 도구가 통역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질문한 결과, ‘그렇다(4점)’가 46명 (42.2%)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5점)’가 36명(33.0%)으로 그 뒤를 이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생성형 AI 도구 등장 이후 통역 준비 방법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5점)’(38명, 34.95), ‘그렇다(4점)’(31명, 28.4%)의 순이었고,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으로 통역 준비 시간이 단축되었는지는 ‘그렇다(4점)’(39명, 35.85), ‘매우 그렇다(5점)’(37명, 33.9%)의 순으로 생성형 AI의 사용이 통역사에게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성형 AI 도구 사용이 통역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보통(3점)’(42명, 38.5%)이 가장 많았고, ‘그렇다(4점)’는 22.9%(25명), ‘매

‘우 그렇다(5점)’는 18.3%(20명)로 실력 향상에 대한 도움은 중간 정도의 평가가 많았다.

생성형 AI 도구 사용의 장점(복수 응답)은 ‘통역 준비 속도 향상’(84명, 77.1%), ‘번역 참고’(72명, 66.1%), ‘다양한 자료 생성’(60명, 55%), ‘전문 용어 정리’(43명, 39.4%) 등이 주로 꼽혔다. 한편, ‘부정확한 정보’(87명, 79.8%), ‘번역의 한계’(56명, 51.4%), ‘정보 보안’(51명, 46.8%), ‘과도한 의존’(45명, 41.3%) 등이 주요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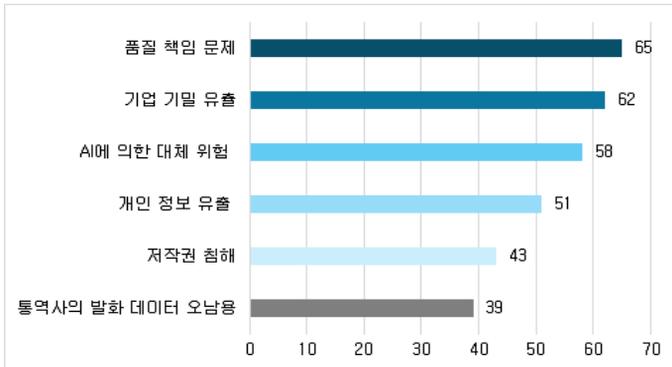


그림 8. 생성형 AI에 관해 우려되는 점(단위: %)

생성형 AI 도구 사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복수 응답)은 ‘품질 책임 문제’, ‘기업 기밀 유출’, ‘AI에 의한 대체 위험’,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통역사의 발화 데이터 오남용’ 순으로 다양한 우려 사항이 골고루 제기되었다(그림 8).

결론적으로, 통역사들은 생성형 AI 도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AI 기술의 한계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AI 통역 도구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이러한 장단점, 기대와 우려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3.1.4. 음성자막 프로그램 사용

최근 통역 현장에서는 인간 통역사와 함께 스크린에는 통역 및 연사의 발화자 자막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통역사들의 경험과 반응을 살펴보겠다.

먼저, 통역 음성이 자막화(voice to text)되어 제공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81명(74.3%)은 ‘없다’, 28명(25.7%)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아직 통역 음성 자막화 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있다’라고 응답한 28명은 자막 품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그림 9)를 물어보았다(1점: 매우 좋지 않았다 ~ 5점: 매우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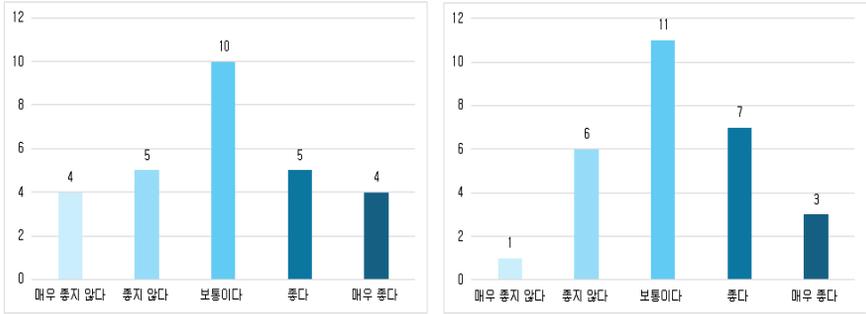


그림 9. 음성자막의 속도(좌)와 정확성(우)에 대한 평가(단위: 명)

속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매우 긍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인 평가는 적었다. 정확성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속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통역 음성이 자동으로 인식/기록될 때 의뢰인으로부터 사전 고지를 받고 계십니까?(기본적으로 voice to text를 의미하나 녹음 기록도 포함)’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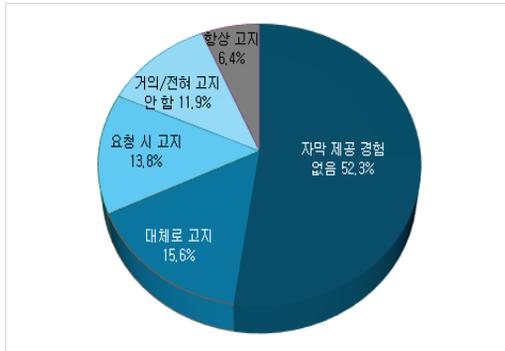


그림 10. 자막 제공에 대한 사전 고지

응답 결과 ‘대체로 고지’, ‘요청 시 고지’, ‘거의/전혀 고지 안 함’ 순으로 나타났으며, ‘항상 고지’는 7명(6.4%)에 불과했다. 이는 통역 음성의 자동 기록 시 사전 고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의미하며,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어서 ‘AI가 통역사의 통역 발화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경우 예상되는 윤리적 문제(기본적으로 voice to text를 의미하나 녹음 기록도 포함)’에 대해 ‘무단 녹음’(91명, 83.5%), ‘인식 오류로 인한 발언 왜곡 가능성’(80명, 73.4%), ‘음성 정보 유출’(77명, 70.6%) 순으로 나타나, 통역사들은 AI 음성 기록과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통역 음성 자막화 기술은 아직 국내 국제회의에서 제공되는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며, 속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AI 음성 기록 활용 시 사전 고지, 정보 보안, 발언 왜곡 방지 등 통역사 입장에서 윤리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 질문 항목은 AI 자동 통역(기계 번역 자막) 사용 경험, 현장에서의 인식, 그리고 기계 번역 자막 제공에 대한 통역사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AI 자동 통역(기계 번역 자막)을 인간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 현장에서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69명(63.3%)은 ‘없다’, 40명(36.7%)은 ‘있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통역하는 현장에서 인간 통역과 AI 자동 통역(기계 번역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92명(84.4%)은 ‘없다’, 17명(15.6%)은 ‘있다’라고 응답해 통역하는 현장에서의 자동통역 제공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있다’라고 응답한 17명을 대상으로 AI 자동 통역(기계 번역 자막)이 제공될 때 자막 제공 속도와 정확성에 대해 리커트척도(1점: 매우 좋지 않았다 ~ 5점: 매우 좋았다)로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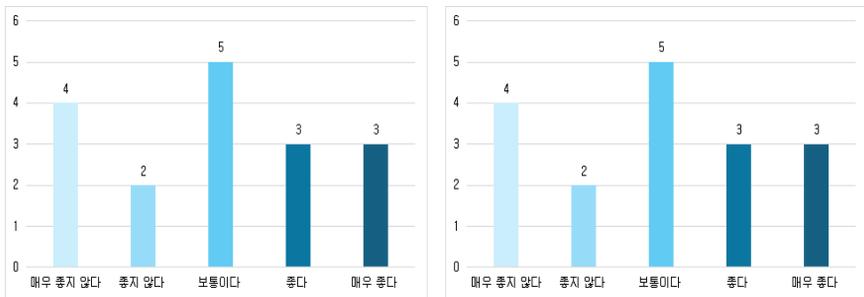


그림 11. AI 자동 통역(자막)의 속도(좌)와 정확성(우)에 대한 평가(단위: 명)

그림 11과 같이 속도와 정확성에 대한 평가 모두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매우 좋지 않았다(1점)’가 ‘보통(3점)’ 다음으로 높아 자동통역 자막 품질의 만족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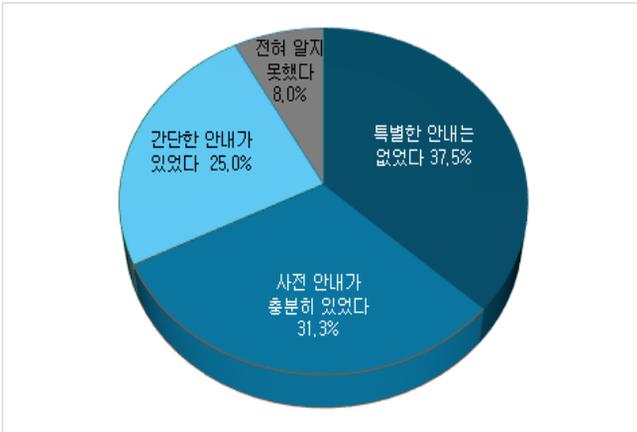


그림 12. 기계번역 자막 제공의 사전 고지

통역사에게 기계 번역 자막이 별도로 제공된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그림 12)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가 충분히 있었다’와 ‘간단한 안내가 있었다’가 절반 이상이긴 했으나, ‘특별한 안내는 없었다’가 6명(37.5%),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응답도 1명(6.2%) 확인되어 40% 이상이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만약 기계 번역 자막 제공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다면 통역 일을 계속 맡을지를 질문한 결과, ‘통역을 하되 추가 요금을 청구하겠다’가 51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통역 일을 계속 맡겠다’가 39명(35.8%), ‘통역 일을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19명(17.4%)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AI 자동 통역은 아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인간 통역과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AI 자동 통역의 속도와 정확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중립적이었으며, 기계번역 자막 제공 시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계번역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 추가 요금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 통역사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통역사 입장에서 인간 통역과 자동통역 자막의 동시 제공은 통역사에 대한 신뢰성, 인지 부하, 기계번역 품질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3.1.5. 미래 전망과 대응

다음은 생성형 AI 통역 도구가 통역사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AI의 대체 가능성, AI 시대에 통역사에게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생성형 AI 도구가 통역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질문한 결과, ‘그렇다(4점)’가 39명(35.8%), ‘보통(3점)’이 30명(27.5%), ‘매우 그렇다(5점)’가 24명(22%) 순으로 나타나 많은 통역사가 생성형 AI 도구가 자신의 역할을 보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향후 5년 내에 AI가 통역사를 어느 정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은 결과, ‘부분 대체’가 52명(47.7%), ‘상당 부분 대체’가 34명(31.2%), ‘미미한 대체’는 20명(18.3%), ‘대체 불가’는 2명(1.8%)이었으며 ‘완전 대체’는 1명(0.9%)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통역사는 AI가 향후 5년 내에 자신들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하우스와 프리랜서로 나누어 살펴보면(그림 13),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AI의 대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었는데, 특히 인하우스 통역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13. 향후 5년 내 AI의 대체 가능성(인하우스(좌), 프리랜서(우))

AI로 대체되기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로는 ‘외교/협상’이 70명(64.2%)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이 23명(2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 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섬세한 상황 판단 능력

을 요구하는 분야일수록 AI로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법률, 의학, IT, 회계, 투자, 컨퍼런스콜, 이사회 등의 응답은 매우 적었으며, 전문 용어 위주의 분야에서 AI 대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I 시대에 통역사에게 필요한 역량(복수 응답)에 대한 응답은 그림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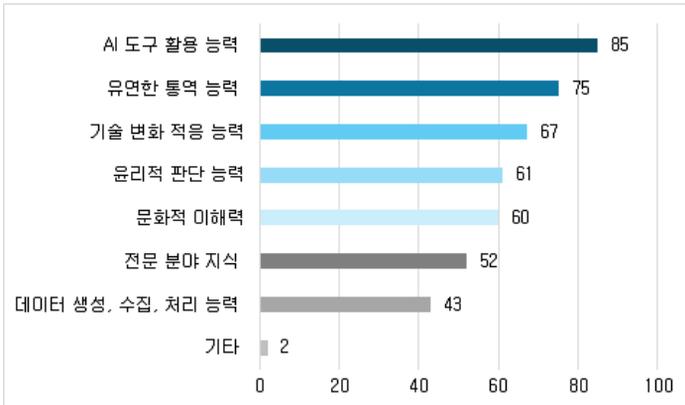


그림 14. AI 시대에 통역사에게 필요한 역량(단위: %)

가장 높았던 항목은 ‘AI 도구 활용 능력’과 연사의 스타일이나 주제의 전환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통역 능력’, ‘기술 변화 적응 능력’이었고 ‘윤리적 판단 능력’과 ‘문화적 이해력’이 뒤를 이었다. 이는 AI 시대에 통역사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통역사들은 AI가 통역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3.1.6. AI 자동통역 틀의 전망

다음은 AI 자동 통역 틀의 발전이 통역 산업에 미칠 영향, 통역사의 직업적 역할 변화,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AI 시대에 대한 기대와 준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향후 5년 내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이 통역 산업에 미칠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작업에 기본 도구가 될 것임’이 56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 도구로 남을 것임’이 35명(32.1%), ‘제한적 사용만 가능할 것임’이 18명(16.5%)으로 나타났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즉,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AI 자동 통역 툴이 향후 5년 내에 통역 산업의 기본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며,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명백한 사실로 인정하고 준비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에 따라 통역사의 직업적 역할이 변화하는지(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렇다(4점)’가 50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5점)’가 25명(22.9%), ‘보통이다(3점)’가 18명(16.5%), ‘그렇지 않다(2점)’가 16명(14.7%)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통역사가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으로 인해 자신들의 직업적 역할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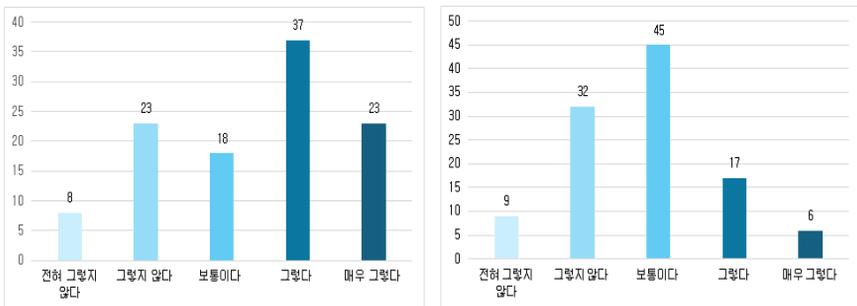


그림 15. AI 자동 통역의 발전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좌) 및 기대(우)(단위: 명)

그림 15 좌측의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에 따른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경우, ‘그렇다(4점)’와 ‘매우 그렇다(5점)’를 선택한 응답자 수가 과반수로,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으로 인한 직업 안정성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보통(3점)’ 이하의 수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일부 응답자들이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15 우측의 AI 시대 통역사의 미래에 대한 기대(1점: 매우 부정적 ~ 5점: 매우 긍정적)는 대체로 ‘중립적(3점)’ 또는 ‘다소 부정적(2점)’으로 나타나, 앞서

본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많은 통역사가 AI 기술의 발전이 자신들의 직업에 가져올 변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1.7. AI 시대를 대비한 준비와 교육/지원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통역사의 준비와 교육/지원에 대해 물었다. 먼저 AI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복수 응답)으로는 ‘전문 분야 심화’(42명, 38.5%), ‘AI/IT 교육’(40명, 36.7%), ‘업종 전환/확장’(39명, 35.8%)과 같이 여러 형태의 준비가 있는 반면, ‘특별한 준비 없음’도 41명(37.6%)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통역사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 구체적인 대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통역사들도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AI 시대에 대비하여 통번역사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기를 원하는 교육(복수 응답)으로는 ‘생성형 AI 도구 활용 교육’이 86명(78.9%)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 분야 교육’(51명, 46.8%), ‘윤리 가이드라인/법적 지식’(50명, 45.9%)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도구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75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저작권 보호 강화’(48.6%, 12명), ‘윤리 가이드라인’(48명, 55%), ‘AI 도구 접근성 개선’(42명, 38.5%),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32명, 29.4%) 순으로 나타났다. 즉, AI 관련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구가 가장 컸으며, 윤리와 저작권 측면에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들 응답 결과는 통역사들이 AI 시대에 대비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3.2. 상관분석: 설문 항목 간 상호 관계 검증

본항에서는 위 문항별 정리를 바탕으로 문항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조합으로 시도하여 본 결과, 통역 형태(인하우스와 프리랜서 여부)가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나 유료 AI의 사용 비율, 사용 빈도와는 크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는 AI 도구 사용 빈도, AI 시대를 대비한 준비 상황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먼저

AI 도구 사용 빈도와 네 가지 항목 간의 상관관계(표 4)이다.

표 4. AI 도구 사용 빈도와 관련된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

기준 항목	비교 항목	상관계수
AI 도구 사용 빈도	생성형 AI 도구가 통역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0.5202
	생성형 AI 도구 사용이 통역 실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가	0.416
	생성형 AI 도구 사용으로 통역 준비 시간이 단축되는가	0.4082
	AI 자동통역 툴의 발전에 따라 통역사의 직업적 역할이 변화하는가	0.3062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로 보며, 표 4에 제시한 결과는 대체로 약 중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AI를 자주 사용할수록 AI가 통역 준비에 도움이 되며, 통역 준비 과정의 시간 단축, 통역 실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어느 정도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AI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AI자동 통역 툴의 발전에 따라 통역사의 직업적 역할이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 간에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AI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 응답자 중에 ‘AI 자동 통역 툴의 발전에 따른 직업 안정성에 불안감’에 대해 ‘매우 불안(1점)’이나 ‘불안(2점)’을 선택한 비율(58.5%)이 특히 많았다. 그리고 같은 질문에 대해 ‘AI/IT’, ‘전문 분야 심화’, ‘업종 전환 및 확장’ 등 다양한 형태로 준비한다고 한 응답자가 ‘AI 시대 통역사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매우 부정(1점)’, ‘부정(2점)’의 비율보다 높았다. 그리고 ‘특별한 준비를 안 한다’라고 한 응답자 중에는 ‘매우 부정(1점)’ 혹은 ‘부정(2점)’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ADP 조사 기관(ADP Research Institute 2024)의 글로벌 노동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생성형 AI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직업 불안감이 낮고 AI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일수록 직업에 대한 불안이 높다고 했으며, 본 조사의 통역사들 답변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종합하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통역사들은 AI 시대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준비가 부족한 통역사일수록 불안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불과 2~3년 전만 해도 통역에서 AI 사용에 대한 논의의 범위는 기계번역이나 음성인식 정도였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이 발전하여 어느새 통역사 및 학생들에게 음성인식이나 기계번역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으며, 일상에서 당연하게 접하게 되는 도구일 뿐이다. 이제는 생성형 AI의 시대가 되어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늘고 있고 많은 것을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툴에 의존하게 되었다. 통역사의 AI 기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논문으로 발표되는 기간에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며, 그동안 사용자의 이용률과 인식도 빠르게 변화한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이용자의 역량 강화와 윤리적인 지침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통역 현장에서 점차 AI 기술과 맞닥뜨려야 하는 통역사에 대한 인식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통역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국내 및 해외의 조사와 비교하면서 기술에 대한 통역사의 인식과 미래 전망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한 팬의 AIIC 회원을 포함한 통역사 대상 디지털 기술 활용의 대규모 설문조사 연구는 2023년 상반기에 이뤄졌으며, 태블릿, 디지털펜 등의 하드웨어와 용어 관리 도구, 음성인식, 기계번역에 대한 통역사의 인식 조사로, 생성형 AI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기술 전반에 대한 인식을 본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인터뷰 결과는 2장의 선행연구에서 정리했듯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의견과 거의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은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음성인식 기능에 대해서는 통역의 자막화와 연사 발화의 기계번역 자막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사전 고지와 음성 유출, 번역 오류를 우려했다. 또한, AI 기술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통역사의 도구 활용 능력과 기술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핵심 역량으로 꼽았다. AI가 인간 통역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는 응답이 80% 가까이 되었으며, 팬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본고의 응답자들도 법률이나 외교 등은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보았다.

다음으로 챗GPT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다룬 2023년의 양정애(한국언론진흥재단) 및 리바스와 무어킨스의 조사와 비교해 보겠다. 이들 조사의 약 2년 후가 되는 2025년의 본 연구에서 통역사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3%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6.2%가 챗GPT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한, 유료 사용자는 30%가 넘어, 상기 2023년도 조사에 비해 이용률은 2배 이상, 유료 사용자는 3배에서 6배 정도 늘었다. 이용 빈도도 70% 이상이 주 1회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2년 전의 10~20%대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통역사 외의 일반 사용자의 증가 양상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성형 AI의 주된 사용 목적은 상기 조사의 분야별 활용성과 유사하며 자료 검색과 자료 생성, 번역 등이었다. 챗GPT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의 응답자들은 부정행위, 저작권 침해, 허위 정보 확산, 의존성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 통역사들은 AI 통번역에 대해 통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가장 우려했고, AI의 대체 가능성,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가 뒤를 이었다. 2023년도와 2025년도 사이에 생성형 AI의 사용률, 사용 빈도, 사용하는 툴의 종류 등은 증가한 데 비해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성인식과 실시간 기계 자막에 대해 통역사들의 우려가 있었으며, 일부 클라이언트 측의 인식 부족으로 통역 음성의 자막화나 기계통역 제공이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발언의 왜곡 가능성과 음성 정보 유출이라는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사 당시 통역사들의 음성인식에 대한 품질 평가는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생성형 AI의 빠른 발전으로 품질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무단 녹음이나 녹음 기록의 유출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역사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호르바스(Horváth 2022)는 AI 기반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심각한 윤리적 위험으로 데이터 편향, 데이터 품질,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소유권, 투명성을 든다. 통역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지 않은 자동통역(자막) 제공의 위험성을 압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한 통역 자막인지 명확하지 않고 데이터 품질도 보장하지 못한다. 다만, 때로 자막 좌측 하단에 “AI가 실시간 실시간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¹²⁾와 같은 문구가 최근 “AI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확인될 따름이며, 청중(시청자)은 그저 부정확성을 감안하고 서비스를 이용(시청)한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데이터 품질에 대한 책임은 불투명하다(Horváth 2022: 11).

이렇게 AI 자동통역이 곳곳에서 제공되기 시작하자, 여러 기관에서 자동통역(자막)에 대한 입장과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CSA 리서치에서 발행한 AI

12) 최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AI 동시통역이 제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SBS 뉴스 2025).

자동통역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6가지 측면(Pielmeier et al. 2025) 즉 ①효과에 대한 이해(AI 통역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효익 분석) ②의도했거나 혹은 의도치 않은 영향 고려 ③대안 옵션을 다각도로 비교 ④효과적 활용을 위해 준비 시 고려할 사항(예: 기술 장비 확보, AI 엔진 훈련 등) ⑤정확도, 유창성, 낱어, 자막 활용 등 통역에 대한 기대 정의 ⑥도입하려는 AI 통역 솔루션에 대한 기술 평가 등은 통역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FIT(국제번역가연맹)가 2024년 8월에 게시한 ‘통역에서의 AI 사용에 대한 입장 보고서’에 따르면(FIT-IFT, 2024) ‘인간 통역사를 감동 및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계통번역(machin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으로 대체하는 것에 확고히 반대하며 이는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과 오류를 발생시키고, 전문 통번역사의 역할을 훼손한다’라고 되어 있다. AIIC(국제회의통역협회)도 2024년 11월에 자동 음성번역(AST:automated speech translation) 데이터의 투명성과 편향, 오류 등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문을 올렸다(AIIC 2024). 이렇듯 유력한 통번역사 관련 협회 차원에서 작년 하반기에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AI가 인간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통역에 사용되는 음성인식, 번역 등의 기술(AI)은 통역사 입장에서는 인지부담을 줄이고 통역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통역사를 찾기 어려운 언어쌍이나 비용, 지리적 위치 등의 문제로 통역을 사용하기 어려운 언어 소수 집단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비스 제공에 앞서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주의를 요하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올바른 기술 사용 방법을 교육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품질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ELIS Research 2024: 40). 또한 통역사에 대한 반복적 재교육(re-training)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다. KATI의 기술 교육 후 사후 설문(Jin et al. 2024)에 따르면 교육 뒤 기술 수용성은 80%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도구 사용률은 절반 이하에 그쳐, 응답자의 90%가 추가 실습형 교육을 희망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출현에 따른 불확실성과 혼란뿐 아니라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번역 학술 프로그램 및 전문 협회에서 LLM, 기계번역 및 기계 통역 리터러시의 개발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Orlando et al. 2024).

본 연구는 국내의 통역사에 한정된 조사로, 전 세계 모든 통역사의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연구가 대부분 아직

챗GPT와 같은 도구가 일상화되었다고는 하기 어려운 2023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져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 후 2년 사이에 생성형 AI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25년 시점에 본 연구가 진행된 점은 통역 실무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함과 동시에 윤리적 측면의 논의를 진행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AI가 인간에게 위협이나 대체가 아닌 인간 통역사의 능력을 한층 더 증강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AI 통번역의 윤리적 우려의 해소 및 AI와 인간 통역의 차이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운영 방안 탐색 등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아영. (2020). 「한-영 실시간 자동통역 시연 사례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18(2): 125-147.
- 남신혜. (2019). 「한국어 학습자의 온라인 기계번역 도구 사용 경험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초급 및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15(2): 55-81.
- 배문정. (2023). 「통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통역 모드 선호도 조사: 인간 통역, AI 통역, 자막 비교」. 『번역학연구』 24(3): 592-614.
- 송연석. (2024). 「AI 시대의 번역 교육 -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자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3): 31-55.
- 양정애. (2023). 「ChatGPT 이용 경험 및 인식조사」. 『Media Issue』 9(3).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구용. (2024). 「출판시장에서의 AI 수용 양상 연구」. 『국제언어문학』 58: 201-225.
- 이상빈. (2018).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17-143.
- 이주리아. (2021a). 「자동음성인식의 통역 활용에 관한 예비연구」. 『인문사회21』 12(5): 2407-2422.
- 이주리아. (2021b). 「포스트에디팅의 번역사 수용에 관한 예비연구 - 한일 기계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5(3): 109-140.
- 이주리아. (2022). 「순차통역 보조 툴로서 자동음성인식 사용성의 사례연구」. 『인문사회 21』 13(4): 937-952.
- 이준호. (2023). 「번역 기술의 학부 교육 적용 사례: 번역 기술 교육 당위성, 학습자 반응, 거시적 설계 함의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5(3): 21-46.
- 이지원. (2024). 「챗 GPT를 활용한 포스트에디팅 교육 수업 사례 연구: 중국인 대학원생 중한 번역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4(9): 613-624.
- 지윤주·이상빈·이선우. (2023). 「학부번역전공자의 챗GPT 관련 인식과 챗GPT 번역 및 포스트에디팅 실험 연구」. 『통번역학연구』 27(3): 203-226.
- ADP Research Institute. (2024). People at Work 2024: A Global Workforce View. Retrieved from [https://www.adpresearch.com/assets/summary-of-people-at-work-2024-a-global-workforce-view/\(2025.2.2.검색\)](https://www.adpresearch.com/assets/summary-of-people-at-work-2024-a-global-workforce-view/(2025.2.2.검색)).
- Cheung, A. K. F. and Li, T. (2022). Machine-aided interpreting: An experiment of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ranslation Quarterly* 104: 1-20.
- Corpas Pastor, G., and Fern, L. M. (2016). A Survey of Interpreters' Need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echnical paper. Retrieved from [http://www.lexytrad.es/assets/Corpas-Fern-2016.pdf\(2025.2.2.검색\)](http://www.lexytrad.es/assets/Corpas-Fern-2016.pdf(2025.2.2.검색)).
- ELIS Research. (2024). European Language Industry Survey 2024: Trends, Expectations and Concerns of the European Language Industry. Retrieved from [https://elis-survey.org/wp-content/uploads/2024/03/ELIS-2024-Report.pdf\(2025.4.2.검색\)](https://elis-survey.org/wp-content/uploads/2024/03/ELIS-2024-Report.pdf(2025.4.2.검색)).
- Fan, D. C. (2024). Conference interpreters' technology readiness and perception of digital

- technologies. *Interpreting* 26(2): 178-200.
- Fantinuoli, C. (2023). Towards AI-enhanced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In Corpas Pastor, G. and B. Defrancq (eds.), *Interpreting Technologies: Current and Future Trend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46-71.
- Gieshoff, A. C., Schuler, M. and Jahany, Z. (2024). The augmented interpreter: An exploratory study of the usability of augmented-reality technology in interpreting. *Interpreting* 26(2): 282-315.
- Horváth, I. (2022). AI in interpreting: Ethical consideration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23(1): 1-13.
- Jin, S., Lee, J. and Lee, J. (2024). What do interpreters expect of digital literacy training? A cas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Forum* 22(2): 206-228.
- Lee, J. (2024).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using speech-to-text transcription as a tool for interpreting. In Moratto, R. and H. O. Lim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Interpreting*. New York: Routledge, 387-412.
- Lee, J., Jin, S. and Lee, J. (2024). How are conference interpreters using technology before, during, and after interpreting? An analysis of Korea's case. *T&I Review* 14(1): 35-68.
- Li, T. and Chmiel, A. (2024). Automatic subtitles increase accuracy and decrease cognitive load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26(2): 253-281.
- Orlando, M., Liao, S. and Kruger, J. L. (2024).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the Industry*. Macquarie University.
- Pielmeier, H., Lommel, A. and Toon, A. (2025). *Perceptions on Automated Interpreting: Results of a Large-scale Study of End-users, Requestors, and Providers of Interpreting Services and Technology. Study Conducted on Behalf of the Interpreting SAFE-AI Task Force*. North Chelmsford, MA: CSA Research; 2024.
- Pöschhacker, F. and Liu, M. (2024). Interpreting technologized: Distance and assistance. *Interpreting* 26(2): 157-177.
- Prandi, B. (2023). *Computer-assisted Simultaneous Interpreting: A Cognitive-experimental Study on Terminology*. Language Science Press.
- Rivas Ginel, M. I. and Moorkens, J. (2024). A year of ChatGPT: Translators' attitudes and degree of adoption. *Revista Tradumàtica* 22: 258-275.
- Wang, X. and Wang, C. (2019). Can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tools assist interpreting? *Transl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3: 109-139.

<인터넷 자료>

- 곽아람·김민정. (2023). AI는 번역가를 대체할까? “속도 빨라 가능” “문맥까진 안돼”.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3/04/17/IKAGULME3VE3TKB2KFFBSG5OVY/\(2025.3.2.검색\)](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3/04/17/IKAGULME3VE3TKB2KFFBSG5OVY/(2025.3.2.검색)).
- 김은영. (2025). “AI와 대화하는 일본, 정보 찾는 한국” 국가별 생성형 AI 활용법 차이 분석.
[https://aimatters.co.kr/news-report/ai-report/18756/\(2025.4.12.검색\)](https://aimatters.co.kr/news-report/ai-report/18756/(2025.4.12.검색)).
- 김현정. (2025). ‘지브리 스타일’에 놀란 챗GPT, 챗GPT에 화난 지브리-챗GPT-4o 기반 이미

- 지 생성 기술로 전 세계 ‘지브리 스타일’ 열풍 일어.
<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49?searchCategory=221&nscvrgSn=260147>(2025.4.12. 검색).
- 손경호. (2017). 구글번역에는 어떤 비결 숨어있나.
<https://zdnet.co.kr/view/?no=20170302163740>(2025.3.2. 검색).
- 이호준. (2025). AI에 밥그릇 뺏길줄 알았는데 ... 통번역 업계 “오히려 더 호황”.
<https://m.mk.co.kr/news/economy/11326952>(2025.5.26. 검색).
- 임주형. (2024). [뉴 잡스] AI가 우리를 대체한다고?...코웃음치는 번역가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61315382492515>(2025.2.3. 검색).
- 정호준. (2025). 챗GPT 이용자 5억명 넘었다...올해만 1.5억명 늘어.
<https://www.mk.co.kr/news/it/11280534>(2025.4.5. 검색).
- 최선. (2025). 의학회도 본격적인 AI 시대...실시간 강의 번역 기본.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3338>(2025.5.1. 검색).
- AIIC. (2024). Letter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ion Summit: Standards for AI interpreting tools.
<https://members.aiic.org/company/roster/companyRosterDetails.html?companyId=13853&companyRosterId=118>(2025.3.2. 검색).
- FIT-IFT. (2024). Position paper on the use of AI in interpreting.
https://library.fit-ift.org/legacy/PDP_202408_AI_EN.pdf(2025.3.15. 검색).
- Interpreting. (2024). 26(2). <https://www.jbe-platform.com/content/journals/1569982x/26/2>(2025.2.3. 검색).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CAI(Center for Augmented Interpretation).
<https://cai.uni-mainz.de/asr-prototype/>(2025.4.1. 검색).
- SBS 뉴스. (2025). 아마존 카이퍼(Kuiper) 위성 첫 발사, ‘스페이스X’에 우주경쟁 도전장, AI 동시통역, SBS 실시간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spEP-4gdYuM>(2025.4.30. 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9 May 2025; revised on 9 June 2025; and accepted on 16 June 2025.

Authors' email addresses

julietlee@ewha.ac.kr

juliajuyeonlee@naver.com

brandon4tni@cau.ac.kr

huhjiun@ewha.ac.kr

About the authors

Juriae Lee (first author)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and technology.

Juyeon Lee (corresponding author) is a Professor at GSIT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preter training and interpreter identity development.

Junho Lee (co-author)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GSIS of Chung Ang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machine transl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Jiun Huh (co-author)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pretation technologies, market trends, and interpreter training.

